

【 해외금융 뉴스: 중국 】

인민은행, 지급준비율 0.5%p 전격 인상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중국 내 자금유입 증가와 인플레이션 및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 확산에 대한 대응조치로 시중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오는 16일부터 0.5%p 인상한다고 발표함.

- 인민은행은 유동자금을 줄이고 물가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내 모든 은행들을 대상으로 지급준비율을 이번달 16일부터 0.5%p 인상함.
- 지급준비율 인상은 올해 1월, 2월과 5월에 이어 네번째로 당초에는 일부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미진하다는 판단 하에 지급준비율 인상 효과를 높이고자 모든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됨.
- 대형 투자기관들은 이번 인상으로 중국 대형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은 최고 18%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며, 약 3,500억 위안(270억 달러)에 달하는 유동자금을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흡수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이번 지급준비율 인상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진정시키는 목적 이외에도 무역흑자 확대 및 외환보유고 증대로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무역불균형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 성격도 있다고 분석됨.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일부 농산물과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최근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부 목표치 3%를 훨씬 상회하는 4.4%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인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통화정책집행보고서(2010년 3분기)에서도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인상이 중국의 10월 무역흑자가 다시 급증하고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대 수준인 2조 6,500억 달러에 달함에 따라 이로 인한 무역불균형 문제가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중요 의제로 거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도 숨어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로이터, 11/11)